광주, 수학여행 전담기관 설립 추진

초·중·고수학여행이달부터 재개··어떻게 달라지나 3학급 단위 소규모 전환···근거리 탐방 위주로 안전요원 배치·안전교육 시행 의무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 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다만, 그동안 시행했던 대규모·관광형이 아닌 소규모· 테마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3개 학급 이하 또는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수학여행을 지원할 전담기관도 설립된다.

지난 30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

여행 시행 방안'을, 광주시교육청은 '수학 여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공개했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도록 했다. 학교에 따라 이르면 여름방학 전인 다음달 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

수학여행 규모는 광주의 경우 3개 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소규모 진행에 따른 업무 부담과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학여행 전담기관' 을 설립할 방침이다. 수학 여행 코스는 안전과 비용 증가 문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거리 지역 탐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보인다. 예를 들어, 충남 부여 일원의 역사기행, 나주시 이슬촌 봉사체험 등 1박2일프로그램이나 유통·경제·금융 관련 진로체험, 해양·우주·산업·문화 관련 진로체험 등 2박3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의 시행방안에는 '안전'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계획이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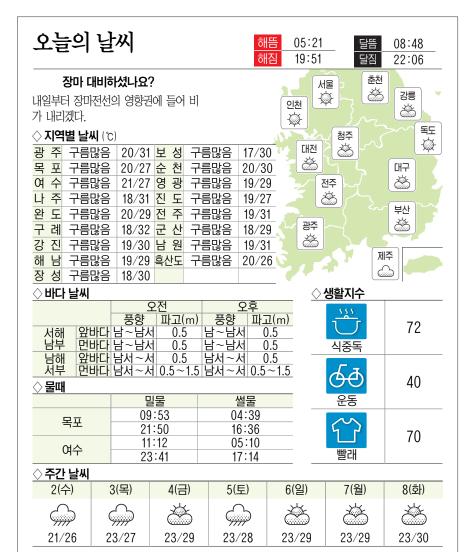
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 또는 지역 등이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100~150명규모의 수학여행시 해당 학교는시·도교육청에신고해야하고, 100명미만은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생 국토대장정 발대식 30일 여름방학을 맞아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국토대장정을 나선 가운데 출발에 앞서 본관 중앙현관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해 11번째 국토대장정에 나서는 학생들은 학교를 출발해 나주, 무안, 목포, 영암, 해남, 완도, 강진, 화순을 거쳐 11박12일 330km의 대장정에 나선다.

광주 우치동물원 '미어캣 부부' 번식에 성공할까

동물원측, 신혼집 마련 정성쏟아

최근 신혼살림을 차린 미어캣(Meerkat· 몽구스과·사진)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광주우치동물원이 개원 이후 처 음으로 미어캣 번식작업에 나섰다.

지난 30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동물원 내 꿩사 옆 우리(13.2㎡·4평)에 몸길이 50㎝·몸무게 1㎏의 미어캣 부부 (수컷 3살·암컷 2살)를 위한 별도의 신혼 집을 마련해줬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테마도무의 '주주'에서 데려오 거으로

종족 번식 후 일정수준(7~8마리)의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물원엔 5마리의 미어캣이 있으며 이중 세마리는 가족동물테마사(숨)에, 나머지 두마리는 꿩사 옆 우리에서 살고 있다. 대개 미어캣은 30마리까지 무리지어 사막의 굴속에서 지내는데, 현재 개체수로는 미어캣끼리서로 영역다툼을 하다가 죽이는 투쟁력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우치동물원 측은 신혼살림을 차린 미어 캣 부부가 번식에 성공할 경우 집단 생활 이 가능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져 건강은 물 론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육사들은 미어캣 부부가 많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안에 사막의 모래를 깔아주

고, 온열기를 가동해 생태에 맞는 적정 온 도(27도 이상)를 맞춰주는 등 각별한 애정 을 쏟고 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번식기는 9~10월이고 출산기는 11~12월 중인데, 올 연말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지리산 '하늘아래 첫 동네' 심원마을 사라진다

20가구 내년까지 이주 생태계 보호지역 조성

지리산 심원마을 일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조성



지리산국립공원 내 '하늘 아래 첫 동 네' 구례군 산동면 심원마을〈사진〉이 사라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내 해발 750m에 위치한 심원마을 20가 구를 내년까지 이주시킨 뒤 이 지역을 핵심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심원 마을은 구례읍에서 27km 떨어진 곳으로 고지대여서 여름철엔 모기도 없고 겨울

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월계동 864-1]

입학안내 TEL: 062)970-0114-5 www.nambu.ac.kr



은 읍내보다 한 달쯤 빨리 찾아온다.

반아봉(1732m), 노고단(1507m), 만 복대(1438m) 사이에 자리잡은 심원마 을은 지리산 한 가운데를 흐르는 달궁 계곡 최상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반달 가슴곰이 자주 나 타나 반달가슴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이기도 하다.

이 곳 주민들은 1967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 대부분 임산물 채취와 한봉(토종 꿀)을 생업으로 했었다. 그러나 주민들 은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지방도 861 번)가 개통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부터는 음식점과 민박집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심원마을 주민들과 관광객

들이 지리상 최상부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부터 주민들과 마을 이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7년 가량 계속된 협의를 통해 공단과 주민들은 보상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 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이주사업에 들어갔다. 이주 보상이 이뤄지는 심원 마을은 64필지 7만4000㎡이며, 소요 예 산은 250억원 가량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심원마을 일부 주민이 이주 계획에 반발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잘 설득, 이주하도록 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그리는 기업 등로 기자 Kill (8) - /구례 = 이성구기자 Isg@



남부대학교

